2026.10.4 연중 제 27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38번>	<폴더 39번>	<폴더 19번>	<폴더 40번>
하느님의 사람	축복송	나의 의지를 주님께	힘을 내라

제 1독서 | 이사야서 5,1-7

화답송 |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 2독서 | 필리피서 4,6-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1,33-43

영성체 후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

<제 1독서>

1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2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 확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3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 다오!
4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5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6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어 가지치기도 못 하고 김매기도 못 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6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8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9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33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34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35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36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37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38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39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40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복음 해설 - 프란치스코 교황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기쁨 안에서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는 사랑도 구원도 필요하지 않다는 슬픈 착각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을 사랑받도록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기 탐욕의 포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모 신심을 찾아서 ① 과도한 성모 신심 VS 올바른 성모 신심 - Fr.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여러분은 다음 기도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려고 오셨으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저희 또한 성모 마리아 없이는 당신을 알아 뵈올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음을 아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모든 재능과 성덕과 은총을 내려 주시오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때에,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만큼,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베풀고 계심을 제가 아옵니다."

이 기도문은 2025년까지 레지오 마리애의 예비 단원이 정식 단원이 될 때 성령께 바치던 선서문의 일부였습니다. 이 표현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많은 성인과 교황님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성모님을 통한 은총의 중개를 노래한 아름다운 표현이었지만, 공의회 이후 정리된 마리아론과 성모 신심의 방향에 비추어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 존재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의 교도권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그 결과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3개의 세나뚜스는 선서문의 수정 번역 시안을 마련하여 주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 시안은 2025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올해 2026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올바른 레지오 마리애 신심》 참고)

'과도한 성모 신심'의 위험

그렇다면 위 선서문의 표현 중 어떤 부분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1) 첫 번째로, 은총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그 활동을 성모님께 종속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는 성령의 보편적 구원 활동을 마리아의 역할 안에 가두는 신학적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은총 분배에서 성모님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려야 할 '흠숭'(adoratio)'과 성모님께 드리는 '공경(veneratio)'의 구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자' 지위를 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1티모 2,5)

성모님을 높여 드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높임이 과도하여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를 가린다면 우리의 신심은 길을 잃고 맙니다.

참된 성모 신심의 모습

초기 교회 때부터 성모님에 관한 신심은 소박하지만 강력했고,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으며 교회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모 신심이 과도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성모 신심'의 위험은 오늘날 사목 현장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이런 '과도한 성모 신심'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5년 11월,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Mater Populi Fidelis)〉라는 공지를 발표하여, 전 세계 교회에 성모님의 호칭 사용과 신심 행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본래 간직했던 참된 성모 신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성모 신심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공지 사항

1. 10월 식사 및 간식 나눔

10월 나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눔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0월 11일: 식사 나눔
- 10월 25일: 간식 나눔

2. <여정 시즌 9> 성경 나눔 온라인 모임 안내

- 10월 6일(화), 저녁 7시
- 10월 27일(화), 저녁 7시

<다음 모임을 위하여 아래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2코린토, 2-5장

* 온라인 모임 때 사용하는 회의실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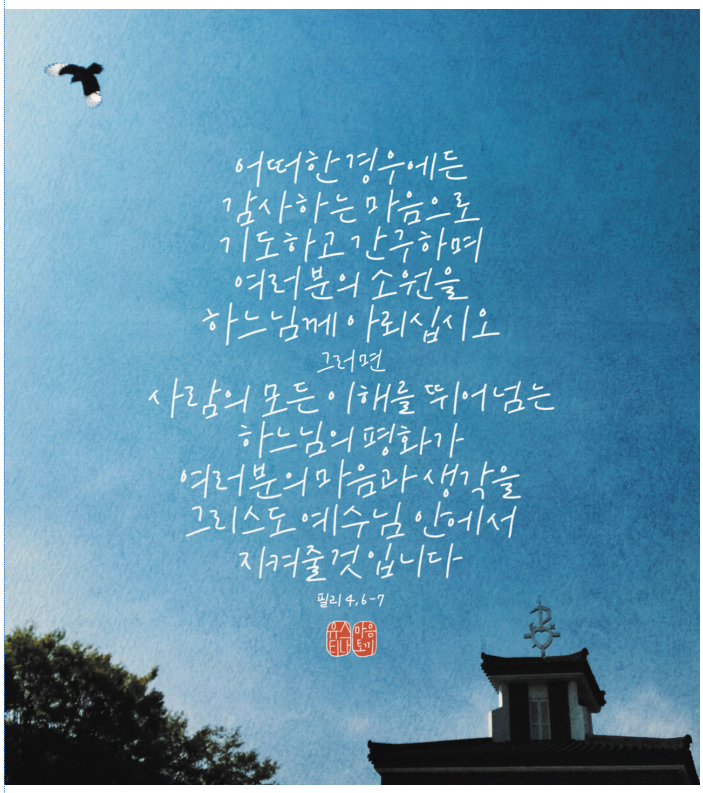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3. 세례를 앞둔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신자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인숙, 신미란, 차진아, 이효령, 신정인
허린, 오성배, 양현희, 유아인, 서정환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10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안윤경 소화데레사 (10.01) - 박가연 소화데레사 (10.01)
- 김인국 프란치스코 (10.04) - 조휘원 프란치스코 (10.04)
- 남궁윤하 유스티나 (10.07) - 박주현 타대오 (10.28)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 전체에 정신 건강에 대한 사목적 돌봄이 자리 잡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인과 차별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 봉헌금 & 교무금 | (9월 26일 ~ 10월 2일)

봉헌금	$ 395	
교무금	$ 410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정수민	정은영	주정자	황병욱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10월 공동체 실천 |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하나 생각하기
그리고 주모경 바치기